

울산항 미래 100년 밑그림… 남신항 에너지허브 키운다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사업 추진 내달부터 사전타당성 검토 진행 미래 에너지 수요, 민간 투자 연계

울산시는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하부 기반시설을 국가재정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 에너지 수요를 반영한 상부시설 구상에 나선다. 아람코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 이용과 투자 협력 가능성도 확인한다.

울산시는 지난 7일 시 본관 3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공약인 '동북아 에너지 물류거점(허브) 조성'과 연계한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사업 대상지는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전면 해상으로 약 34만7000㎡ 규모다. 7만 DWT급 액체화물 부두 2선석을 조성하는 내용이며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재무성 분석에서는 총투자비가 1조784억원으로 산정됐다.

울산항만공사(UPA)는 오는 11월부



신민식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조성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울산시

터 내년 10월까지 사전타당성 검토를 진행한다. 사업 수요와 적정 시설 규모 및 사업비와 경제성을 살피고 울산시는 정부와 하부시설의 국가재정 전환을 협의한다. 재원 분담과 사업 주체 및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방식과 국가계획 정비 필요사항도 관계기관과 조율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공공재정으로 하부시설을 확보해 민간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고

저장탱크와 공급설비 등 상부시설 투자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상부시설은 원유와 석유제품뿐 아니라 수소·암모니아·메탄올 등 미래 에너지 수요까지 반영한다. 사한 프로젝트와의 연계 가능성도 살피고 기업의 생산·물류 계획을 바탕으로 저장·하역·공급 수요와 투자 가능성을 확인한다. 기존 시설로 충당할 수 있는 수요와 추가 시설이 필요한

수요를 구분해 품목별 이용 규모와 시기 및 중장기 수요를 검토한다.

아람코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는 저장·하역 규모와 이용 시기 및 장기 이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원유와 석유제품은 물론 수소 등 미래 에너지 분야의 투자 협력 가능성도 살핀다. 기업 협의에서 확인된 장기 이용 수요는 향후 상부시설 규모와 투자 방식 결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신민식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람코 등 세계적(글로벌) 에너지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실수요에 맞는 공공 항만 기반시설 조성과 민간투자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원유·석유제품부터 미래 에너지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저장·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울산항을 대한민국 에너지 공급망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세계시장을 연결하는 동북아 에너지 물류거점(허브)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항은 액체화물 처리 규모 국내 1위이자 세계 4위 수준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경주시

경북한우경진대회 '최고 영예'

경주시지역 한우농가들이 '2026경북한우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2점과 우수상 1점을 수상하고 그랜드 챔피언까지 배출했다.

경주시는 이번 대회 미경산우와 경산우 1~3부에 한우 4두를 출품해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경산우 1부에서는 천북면 최삼호 농가가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경산우 2부에서는 건천읍 최원준 농가가 우수상을 차지했다. 경산우 3부에서는 내남면 김근술 농가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출품 한우 가운데 최고를 가리는 '그랜드 챔피언'에도 선정됐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파주시

6년근 인삼 품질관리 강화

파주시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임진각 광장에서 열리는 '제21회 파주개성인삼축제'를 앞두고 판매용 6년근 인삼의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축제장에서 판매할 인삼에 대한 수확 전 안전성 검사를 마쳤으며, 채굴부터 선별·봉합까지 전 과정을 관계 공무원 입회 아래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제에서 판매되는 파주개성인삼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과 감악산 일대에서 재배한 6년근 인삼이다.

파주개성인삼은 고려인삼의 전통을 이어온 지역 특산물로, 시는 인삼의 품질과 지역 특산물의 경쟁력을 알리기 위해 21년째 파주개성인삼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영남대·대구한의대·포항공대

지역혁신 우수사례 대회 수상

경북지역 대학 3곳이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한 '2026년도 앵커 혁신성과·도전 지역혁신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남대학교는 대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대구한의대학교와 포항공과대학교는 각각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대학과 지역이 협력해 발전 생태계를 만들고 동반성장을 이끈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3개 부문 9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36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남대는 앵커-Festival '시그니처 과제' 분야에서 '지·산·학·연 협력을 통한 세포배양 산업화단지 구축'으로 대상을 받았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하동군

대학과 군민 평생교육 확대

경남 하동군이 지역 대학과 협력해 군민들의 취업과 자격 취득, 생활여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동군은 국립장원대학교 남해캠퍼스, 경상국립대학교와 함께 '2026년 대학·지역 협력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오는 12월부터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 협력 강좌 4개와 일반 강좌 1개 등 총 5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몽골 시장개척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 중앙랴 시장개척단 파견 성과

중앙랴·몽골 111만 달러 수출협약 독점 공급 제언 등 후속 협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몽골 울란바토르에 '2026 중앙아시아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총 111만 달러(약 14억 9000만 원) 규모의 수출협약(MOU)과 4000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을 했다.

시장개척단은 현장 계약뿐 아니라 샘플·견적 요청과 독점 공급 제언 등 후속 협의로 이어져 향후 실제 수출계약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중앙아시아와 몽골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공산품 수입 수요가 높은 시장이다. 특히 경제 성장과 젊은 인구,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 소비재와 농수산물식품의 전략적 수출 거

점으로 꼽힌다.

시장개척단 상담 결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는 봉강천환경 50만 달러, 푸른정식품 15만 달러 등 총 65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했다. 또 메사코사, 서광식품, 에스에이치랩, 위로푸드가 각각 1천 달러씩 총 4천 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을 해 실질적 수출 성과도 거뒀다.

현지 공관과 유관기관도 전남광주기업의 시장 진출에 힘을 보탰다.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은 'K-이니셔티브' 핵심 전략인 싱글윈도우를 통해 지상사협의회, 한인회 등과 협력해 현지 시장정보와 기업 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광주=양수현 기자 ysn6313@

경기도, 산업체 급식소 210곳 집중 단속

원산지·보관기준 위반 관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산업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업체 210곳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외식물가 상승으로 산업체 구내식당 이용이 늘면서 저가 수수 경쟁과 식재료 검수보관 부실 등 위생관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 비해 정기 점검이 상대적으로 적은 산업체 집단급식소의 관리 실태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주요 단속대상은 ▲미등록 업체의 무허가 식재료 사용 ▲식단표·거래명세서 원산지 거짓 표시 ▲냉장·냉동식품 보관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미신고 영업 등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순창 고추장, 신장 손상 완화 기능성 밝혀

전북대 공동 연구팀 과학적 규명

전통 발효식품인 '순창 고추장'이 비만으로 인한 신장(콩팥) 손상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학계와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추장의 항비만·항암 효과를 넘어 만성 질환 예방이라는 새로운 과학적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순창군은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한안나 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공동 연구를 통해 고추장의 비만 관련 신장 손상 완화 가능성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식품과학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인 'Food Science & Nutrition'에 게재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추진하는 '장류 기능성 규명'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연구팀은 사람 유래 신장 세포를 이용

한 '인 비트로(in vitro)' 실험과 생쥐를 활용한 동물 실험을 병행해 고추장의 효능을 정밀 분석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먼저 세포실험에서는 고추장 추출물이 신장 세포 내의 지방 축적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비만으로 유도되는 염증 반응을 유의미하게 차단하는 것이 관찰됐다.

이어 진행된 동물실험에서는 고지방식을 13주간 섭취해 비만을 유도한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고지방식과 고추장을 함께 섭취한 집단은 고지방식만 먹은 집단에 비해 신장 손상의 핵심 지표인 'KIM-1(Kidney Injury Molecule-1)' 수준이 약 50% 수준으로 급감했다.

실제 신장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에서도 고지방식 섭취로 인해 파괴되고 변형됐던 신장 내부 구조가 고추장 섭취군에서는 정상에 가깝게 유지되는 등 확연한 완화 효과를 보였다.

/전북=정봉철 기자 jbc6746@

경산시, '오만가지 목소리'로 시민 소통

토크콘서트 열고 현장 목소리 청취

경산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시정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오만가지 목소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일방적인 정책 설명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생활 속 고민과 건의사항을 직접 이야기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시민 참여형 소통 행사로 마련됐다.

특히 행사장과 지역 소상공인 현장을 이원생중계로 연결해 소상공인과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중계 현장은 영남대학교 지역혁신동 반성장센터와 대학생들이 지역 소상공

인과 협업해 상권 활성화에 나선 곳으로, 대학생들은 지역 점포와 연계해 벽화를 조성하고 가게 환경 개선 등을 지원했다.

행사에서는 소상공인과 대학생들이 지역 상권의 어려움과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가져온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참석 시민들도 육아와 소상공인, 청년·대학, 생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산시는 이날 나온 시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향후 시정 운영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검토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 목소리를 듣는 소통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산(경북)=김진곤 기자 jingon@